

# GRACE 선교소식

2025년 4월 GMI-GKC 선교사 현황: 64개국 319명 (자체파송 78%)

##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부활주일 예배를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친 후, 저녁 비행기로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출국하여 지금은 MEGL 15기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MEGL에는 총 68명의 캔디데이트가 참석하였고, 섬기는 멤버로는 미국 은혜교회에서 61명(유아 7명 포함), 한국 GMI 은혜교회에서 22명(유아 8명 포함), 현지인 31명과 선교사 32명 등 총 146명이 연합하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MEGL(Middle East Glorious Light)은 이제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선교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를 비롯해 이라크, 이란, 요르단, 아제르바이잔, 한국, 미국,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

습니다. 주님께서 무슬림 지역에 복음의 길을 여시고, 이 사역이 선교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는 한국어, 터키어, 영어, 아랍어 등 여러 언어로 통역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와 성령충만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TD에는 GMI 은혜교회와 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함께 팀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어 더욱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GMI의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TD를 통해 무슬림 선교에 큰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무슬림 선교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따릅니다. MEGL 진행 중, 호텔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호텔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중요한 강의 도중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3년 전 대지진의



###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터키 TD 및 유럽성화: 4/20-5/3
- 파리 은혜교회 27주년: 4/27
- 한국 및 대만사역: 5/18-5/28
- GMI 사랑의 불꽃 1기: 5/25-5/28
- JAMA 중보기도 Conference: 6/2-6/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트라우마로 인해 더욱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현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P국

### 정OO / 정OO 선교사

매년 아직도 한없이 연약하고 스스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던 제자 사역자들이 그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매년 이 나라 전역에서 온 복음사역자들과 개종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과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이제는 자비량으로 이 나라 전역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들마다 매년 3월이면 1년 간의 학업 성적에 따라 시상식 행사를 하는데, 금빛 나는 작은 트로피를 받거나 메달을 걸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할

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10여년 전에 주민의 거의 모두가 문맹인이었던 이 지역에, 이제는 12학년까지 마치고 회사도 들어가고, 지역 학교 교사가 되어 활동하는 졸업생들을 보면,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영육 간에 더 건전한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 늘 고심합니다. 주일학교시간에 그리스도 학생들이 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러 오질 않아서, 아예 학교 2층에 비전센터 강당을 지어, 주일날 주일학교를 그곳에서 할 계획을 오래 전부터 갖게 되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어 지금 최대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강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자 사역자들의 학교와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학교와 교회가 그 지역 중심 역할

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우물을 파고, 식수는 물론이고 목욕과 빨래 짐승의 물도 먹일 수 있는, 다용도 우물들이 지역에 많은 호응을 얻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 학교와 교회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부흥되고 있습니다.



# 베네수엘라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 4기 대학생 사랑의 불꽃

베네수엘라 대학생 사랑의 불꽃이 3월 1일부터 4일간 85명 (콜롬비아 4명) 의 참가자와 75명의 팀멤버들이 모여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 85명을 뽑는데, 140명이나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MODU CAMPUS라는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리더와 멤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였고, 접수한 85명이 한명도 빠짐없이 100%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은혜 받고 돌아간 new pescadores들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대학생 선교사역 할 것이기에 사랑의 불꽃의 열매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세계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참가자와 팀멤버 할 것 없이 과반수 이상이 앞으로 나아와, 자기 삶을 단기, 중, 장기 선교사로 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 이들 중 정말 선교할 학생들을 잘 훈련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 신학교 졸업 목사님들 수련회

귀한 신권사님의 섬김으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신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영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12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졸업 후에 잠시 없어



버렸던 영성을 새벽기도와 집회로 인해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을 통해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GMI의 방향성과 맞추어 앞으로 베네수엘라 신학교의 방향성은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 신학교를 통해 교회들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더 개척하고, 또 세계선교에 기도와 물질과 선교사로 헌신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부탁드리기는 7월에 있을 11기 사랑의 불꽃에 내년 신학교에 입학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양질의 목회자들이 들어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학교 목회자 양육 사역

신학교 수련회 전, 후로 주님께서 현지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후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다가 영성과 비전을 잃은 목사님들을 보며 이들을 도우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월부터 3개의 주를 다니며 도시마다 신학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 설교 준비, 리더 양육, 양육 교제, 찬양팀 컨설팅, 성령 사역, 교회 조직, 부

부 관계 기타 등등을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힘이 되는 데까지 우리 목사님들을 섬겨 세계 선교하는 모델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콜롬비아 선교센터 건축

지난 달 선교편지에 보내 드렸던 콜롬비아 선교센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센터에서 앞으로 신학교, 대학생 리더 훈련, 사랑의 불꽃, 선교사 훈련원 등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할 것이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있는 양헬 부부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영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있길 기도해주시고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국

최광 / 나미연 선교사

여러분께서 기도해주심으로 아프리카 듣새기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보츠와나는 총 150여명의 참석인원 중 67명이 성경암송을 결단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총 200여명의 참석인원 중 94명이 성경암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1년 후 600절 암송을 목표로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통독(구약 10독, 신약 30독 목표) 및 성경암송을 지속하게 됩니다. 내년 2026년 3월에도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암송점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 500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참석자들은 이 듣새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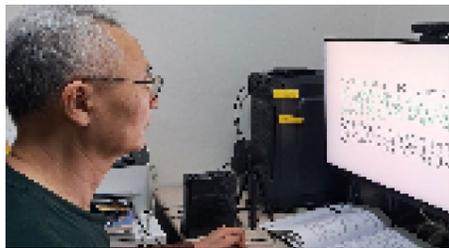
역을 통해서 세계선교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눈으로 보았고 아프리카 3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런 놀라운 일들은 처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고백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듣새기팀과 열방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군사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GBT 선교사를 대상으로 화용론 수업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GBT 학술부 요청으로 의미론 수업을 하고 난 후부터, 화용론 수업을 하기 위해 378페이지 분량의 책을 쓰고, PPT 슬라이드 819장을 준비하였습



니다. 언어학에서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의미론이고 다른 하나는 화용론입니다.

의미론은 말해진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참이나 거짓이나 관점에서 다루는 분야라고 하면, 화용론은 문장의 의미를 다루며, 문자적인 의미와 비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화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화용론은 성경의 각각의 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성경 번역에 담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학문일뿐만 아니라 담화분석, 사회학과 의사 소통학과 연관된 학문이기도 합니다.

수업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화용론과 담화분석의 중간 영역인 응집성과 일관성, 의미론과 화용론의 중간 영역인 전제, 함의, 함축, 그리고 화행, 간접화행, 대화함축, 공손, 적정조건, 관련성 이론, 발화와 맥락, 다성성, 발화지시체계



등 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성경 번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화용론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선교사들을 위해, 학술부가 수업을 녹화한 동영상과 준비했던 교재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보안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성경번역을 완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사랑하는 찜으란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사역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주일엔 어린이 예배 찬양도 인도합니다. 어려서는 부끄럼도 없이 아주 당차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던 친구였는데 다 커서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이 친구를 통해 전도된 식구가 3명입니다. 찜으란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사역자 사라뵈의 가정이 교회에 헌신적입니다



다. 열심히 따라와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설교는 제가 흐름을 따라 준비하여 사라뵈와 나누면 그가 더 묵상하고 준비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에 칭찬과 박수, 또 게임을 적절히 섞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몇 안 되는 어른 예배 때에도 제가 가르쳐준 말씀들을 따라 설교를 합니다.

사역자 사라뵈가 개인적인 영성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메마른 심령이 아닌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말씀과 충만함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합니다. 제가 할 때보다 자신들의 동족이 그 언어로 하니 말씀이 더 잘 스며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이 나라의 명절인 새해가 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사실 앞뒤 몇 주 동안 출석율이 저조합니다. 온전히 주일성수 할 수 있도록, 혹 지방을 가게 되더라도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함을 알고 우상숭배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명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계기로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전도와 예배의 준비 그리고 다과 등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세 자녀 중 둘은 이미 한국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큰 딸이 마지막 4학년을 잘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후 대학원을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고민이 많은 듯합니다. 둘째는 군입대 준비중이며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고3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 잘 준비해서 대학에 순조롭게 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자녀가 거처할 한국에서의 집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신청하는 것이 있어 신청하였지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자녀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바람 잘날 없는 한국의 불안한 정세에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주님의 참제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태국

김인기 / 박춘희 선교사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 같은 세월 속에서, 걸사님은 후배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에 늘 기도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심을 감사드리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섬김의 손길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 나깨 교회 (2015년 개척)

나깨교회 예배당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 임직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제 여러가지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칸르앙 교회 (2017년 개척)

칸르앙교회는 모교회인 나깨교회에서 분리 독립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얼마 전 성도 장례식을 통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마을공동묘지 일부를 교회 묘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몇 년전 칸르앙교회 성도 첫 장례식 때에는 마을의 핏박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 콰락 교회 (2018년 개척)

이 지역(타파놈 군)은 한국의 경주 불국사와 같은 곳입니다. 태국 동북부(한반도 면적, 인구 2,300만)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절이 있어서 태국 전역에서 불교신자들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힘겹게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교회를 함께 섬겨 세워갈 수 있는 충실한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 예루살렘 교회 (2023년 11월 개척)

나콘파놈 도청소재지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희 부부와 태국인 성도 3명이 기도와 예배, 전도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함을 몸소 체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개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 농송 교회 (2024년 8월 개척)

나콘파놈도(道) 옆에 위치한 목다한도(道) 농송군(郡)에 2024년 8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지역은 교회가 없는 군(郡)입니다. 나깨교회 성도인 부부와 함께 그들의 고향인 농송군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몇 명이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거듭난 성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 필리핀 아이파학교 장학금 후원학생편지

Jurene Pearl C. Valerio, 9세, 미래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은 아이는 Villa Maria Integrated School의 3학년 학생입니다. 그녀는 두 형제 중 막내로,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그마한 구멍 가게(사리사리스토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아버지는 재단사로서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노력과 사랑은 Jurene에게 큰 자랑이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Jurene은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매주 주어진 암기 구절을 완벽하게 암기하며, 토론 시간에는 매우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로 참여합니다.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 소극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톨이처럼 느껴졌던 그녀가 이제는 쾌활하고 밝은 소녀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말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깊은 믿음과 감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Jurene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사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는 Jurene의 모습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 알바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2025년 새해에는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얻은 자유와 평안함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잊지말라'는 내용인데, '잊다'는 '잘못 두다'란 의미로 중요한 일을 기록해놓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표시를 해주지 않아서 그 결과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점 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뤄주시는 주인이시자 주체이심을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능욕과 고통의 쳄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해서 주님께 영광돌림과 감사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 열매에 대해

얼마 전 아내가 한 동료 선교사님의 차로 이동하면서 서로의 사역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제게 나누었습니다. 알바니아 땅의 척박함을 서로 공감하면서 사역의 '열매'에 대해 서로 애가 타는 심정을 공유했다 합니다. 아내는 무엇보다 알바니아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소수의 영혼들만 알곡으로 익어가고 다른 이들은 마치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떠났기에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계속 감동주시는 방향으로 저희는 믿는 친구들과만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요나'자매는 반 짝궁에게 1년 가까이 복음을 나누던 중 '피요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아니사는 아내와 한국어를 공부하던 중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대학 친구 둘과 동생들에게 먼저 복음을 나누었고 그중에서 둘째 동생 '수엘라'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는데 교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매주 온라인으로 저희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동료 선교사님이 듣다가 "아니 어떻게 그게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알바니아 땅에서 가족이든 친구들에게 단순히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2세대가 나온 게 어떻게 열매가 아닐 수 있나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도 어느새 크고, 많은 것만 열매라고 생각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여 너무 부끄러웠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보다 자신이 원하는 열매만 찾는 안타까움에 빠져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찾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불길 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나'는 자신의 남편 '마리오'에게 그리고 '아니사'는 한국에서 자신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의 기준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자매들이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남편과 남자 친구에게 복음에 마음을 열게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 실재가 되어 꽃을 피우고, 때가 되어 그 열매로 주위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면 우선 우리의 선교 사역은 주님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열매를 맺은 게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그저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이 친히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친구 되시는 그 과정에 그저 복음과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저희는 요즘 세 그룹의 학생들과 때론 한국어 수업으로, 때론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때론 커피 타임을 하면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인 8학년인 '소피'와



'헤라'에게는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을 주고 함께 말씀을 매일 읽어보자고 제안했었는데 좋다고 큰소리 치더니 며칠 못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이 영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친구이며 아주 신실한 무슬림 친구인 '요니다'가 3년 전 저희 예배를 참석했었을 때 좋았다며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의 견고한 진과 코란적 강력한 사고를 바꿀 수 없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내와 성경도 같이 읽고 성경공부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많지만, 저희도 주님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보면 주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선 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루실 믿음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 시온이와 시몬이

한국에서 대학원 연구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시온이는 2년만에 알바니아 집에 와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울산에 있는 시온이를 직접 찾아가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신 분들로 인해 이게 무슨 사랑인지 은혜인지 이미 마음 밭이 잘 경작된 채 만날 수 있어서 집에서 2주간 푹 쉬면서 힘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시몬이의 7월초 대학 입학신청을 위해 6월 중순경에 잠시 귀국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앞서 가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홀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세요.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1. 쓰나옴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현지 사역자와 그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며,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은 잘하지만 아직은 목회자로서의 소양은 부족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4. 껌으란이 직장문제로 주일 지키지 못할 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신앙에 있어서 주님안에서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5.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6.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7. 새로운 마을에서 예배를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일들로 인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 ▶ 태국 김인기/박춘희 선교사

1. 저와 아내가 사랑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교회들(나깨교회, 간르양교회, 람락교회, 예루살렘교회, 농송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더하소서!
3. 성령님의 권능과 더 큰 믿음으로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소서!
4. 선교센터와 153학교를 세워주소서!
5. 교회개척할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세우시고 보내소서!
6. 자동차를 주옵소서!



## ▶ P국 정OO / 정OO 선교사

1. 그동안 세워진 제자 사역자들과, 지방 지역마다 세워진 복음전도자들이 더 더욱 열심으로 복음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2.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영혼들을, 제자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교회, 사역 센터로 날마다 많이 이끌어 주소서
3. 분리독립 운동자들에 의한 테러가 잦아지고, 지역 간의 배타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4. 계속해서 정치가 안정되고, 때에 맞는 좋은 날씨와 비를 주셔서, 이 나라 주 산업인 농사가 잘 되게 하소서
5. 스기스와 우리 제자사역자 모두가 늘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일하게 하소서

## ▶ 알바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1. 주님과 임마누엘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구별해 따라갈 수 있도록
2. 주님이 보여주신 세례 요한과 같은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3.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요나와 아니사가 든든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 지도록
4. 한글을 통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도록
5. 요나의 친구 피요나, 아니사의 동생 수엘라, 그리고 요나의 남편 마리오와 아니사의 남자친구에게도 복음의 씨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도록
6.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대해 보여주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1. 모국어 성경이 필요한 곳마다 지속적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파푸아뉴기니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치안이 안정돼서 평화로운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2. 동역교회와 동역자님들과 저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 김운용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틈틈이 진행하고 있는 언어학 자문위원 과정을 순적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어학 자문이 필요한 언어마다 연결해 주셔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남영미 선교사의 정기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 정기검진은 5월 8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영미 선교사의 체온 조절이 잘 되고 면역력을 높여 주셔서, 난소암이 재발하지 않고 다시는 어떤 암도 발병하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변화시켜 주셔서 남은 삶을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5.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장래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 선교부 광고

### 1. 진행 중인 선교사역

- J국 교회개척 및 선교지 방문 (4/27-5/6)
- 브라질 AFA #17 (4-20-5/5)  
이번주에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인도네시아 개척선교 및 신학교 사역 (5/9-5/17)  
문의: 홍호철 장로 (562-900-4202)  
총무: 이정호 안수 집사 (213-500-7939)
- 필리핀 개척 전도 및 Grace Camp (5/27-6/2)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총무: 최혁운 간사 (909-241-0087)
- 가족과 함께하는 필리핀 VBS (6/1-6/8)  
리더: Jackie Yu 전도사 (909-967-4626)  
총무: 최혁운 간사 (909-241-0087)
- Fresno 단기선교 (6/9-7/2)  
T/M: 매주 토 VC119  
회비: 개인 400/가족 800  
리더: 류영선 집사  
문의: 최성근 집사 (858-204-2259)

- 쿠바 신학생/청소년 인카운터, VBS (6/29-7/6)  
S/L: 설성훈 목사  
OT: 4/14(월) 7pm, VC108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 케냐 의료선교 (7/6-7/16)  
리더: 김영수 장로 (714-417-2001)  
총무: 한 조셉 안수집사 (714-213-5033)
- 필리핀 TD#1 (7/26-8/2)  
S/L: 한기홍 목사  
렉터: 이희경 안수 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 집사 (714-328-4820)  
TM: 6/22 새가족국
- 파라과이AFA#12 & 신학교 3기 졸업식 & 치과사역 (7/28-8/7)  
S/L: 안영식 목사  
렉터: 노우중 안수 집사  
OT: 5/14(수) 7pm, VC205A
- 은혜동산 TD#17기 (10/24-11/3)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해규 장로  
OT: 5/8(목) 7pm, 웨딩체플  
문의: 이정호 안수 집사 (213-500-7939)

###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